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고양 YWCA

www.kyywca.or.kr



Goyang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 마음을 나누는 묵상 ∞

인즘 여러분은 얼마나,
또 무엇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요즘 여러분은 얼마나, 또 무엇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아메리카 원주민 학교에서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 연설(Thanksgiving Address)을 한다고 합니다.

내 곁의 사람에게, 땅에게, 그리고 물, 바람, 해, 달, 별에게 전하는 그들의 감사 인사가 메말라 있던 감사의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주위의 얼굴을 둘러보며 생명의 순환이 계속됨을 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그리고 못 생명과 더불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할 의무를 받았습시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서로에게 인사와 감사를 건넵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며, 걸을 때마다 우리의 발을 떠받쳐 주는 땅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달래고, 모든 존재에게 힘과 생기를 주는 폭포와 비, 안개와 개울, 강과 바다,

눈과 얼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물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세상을 걷고, 삶을 나누는 동물과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며, 스스로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내어주는 물고기에게 감사합니다.

머리위를 날아다니며 아침마다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하고, 우리에게 삶을 누리고 고마워하라고 일깨우는 새들에게 감사합니다.

인간을 풍요롭게 먹이는 모든 식물, 밭에서 거두는 모든 작물과 질병을 없애라는 명령을 받은 약초에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피난처와 그들이 되고, 누구에게는 열매와 많은 요긴한 선물을 내어주는 나무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깨끗케 하고, 계절을 만드는 동서남북에서 와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바람에게 감사합니다.

번개와 천둥소리로 생명을 새롭게 하는 물을 가져다주는 우레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김없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을 가르며 새날의 빛을 가져다주는, 모든 생명불의 근원인 만형 해님에게 감사합니다.

얼굴을 바꾸어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고, 땅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할머니 달님에게 감사합니다.

밤길을 걸을 때 어둠을 밝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고, 들판에 이슬을 내려 만물을 기르는

하늘에 보석처럼 뿌려져 있는 별님에게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일깨워준 스승에게도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주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인사와 감사의 가장 좋은 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식물생태학자 로빈 월 키머러가 쓴 『향모를 땅으며』

(에이도스, 2020)에 소개된 '감사연설'을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이은경 목사 감리교 신학대학교

발행처 고양YWCA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더포리차 5F 전화 031)919-4040 팩스 031)913-4042 편집국 나래기획 031)968-7450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꾸고 달라지게 하는 것들~~

바이러스가 이렇게 장기간, 관계를 끊게 될 줄은 몰랐다. 모든 것이 당황스럽다. 봄은 잃어버린거 같고, 관계를 어떻게 지속 해 나가야할지 잘 모르겠다. 마음 챙김도 생활의 책임도 이제 개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웃과의 만남은 힘들어 졌지만 국가의 역할은 강화되었다. 세계화의 물결은 정지되고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에 국민의 삶이 달려있음이 확실해졌다. 논란이 되었던 기본소득은 어느틈에 실행이 되어 세금을 내기만 했던 서민들의 삶에 기쁨을 주었다. 국가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시간들이다. 질병을 관리하고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국가시스템을 지키는 일이 되었고, 동참하는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바이러스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육체노동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가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은 여지없이 깨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살아남으려면 유연해야하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적응하는 시간들이다.

최향숙 회원

코로나 전국적 확산세로 인해 나는 대학교 1학년으로서 사이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다. 학교를 왔다갔다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집에서 언제나 강의를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했다. 줄어든 통학시간으로 인해 생긴 개인시간 동안에 나는 홈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건강하게 몸을 챙겼다. 또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피아노도 치면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출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자극적인 것보다 담백한 집밥을 더 선호하게 되는 입맛으로 바뀌게 되었다. 긍정적인 식습관의 변화로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예전의 나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 챙겨보지 않은 반면에 근래에 넷플릭스에 푹 빠지게 되었다. 영화에서 주는 감동과 재미를 느끼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 있었다.

이렇듯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활의 절반가량을 집에서 보낸 것이 아쉽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소소하게 행복했던 나날이었다.

대학생 양지현 회원

일단 학교를 안가서 너무 좋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 클래스도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들어도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 더울 일도 학교 에어컨 때문에 추울 일도 없다. 하지만 학교를 안 가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금 이 시기가 대학입시나 학업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격주 등교, 온라인 클래스 등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다.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집에서는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고 학교 안가면 생활이 불규칙해져서 다시 일상생활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상으로 드리기 경건한 자세로 드리기 어렵다. 집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편안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다. 빨리 고등부 가고 싶다ㅠ

코로나로 인해 방역이나 매시간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위생에 엄청난 신경을 쓴다. 마스크도 답답하고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다. 매번 귀찮고 힘들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예전처럼 생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청소년 한승이 회원



코로나19 의료진 간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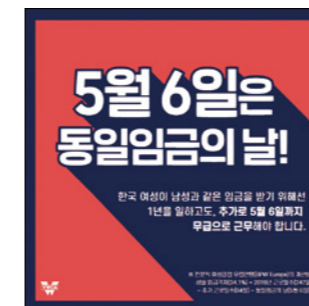
고양YWCA는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모금된 금액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방에서 분투하고 있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에게 간식박스 300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고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가사도우미 활동가를 위한 손세정제, 면 마스크, 필터가 담긴 키트 300개를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서로를 응원하였다.

YWCA 애프터유 캠페인을 시작으로 사랑의 모금 캠페인까지 코로나19로 우리는 우리 주위를 다시한번 돌아보며 묵묵히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감사함을 코로나 19로 더욱 힘겨워할 이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나눔과 연대활동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2020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4.6%로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약 66만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날짜로 계산하면 여성은 남성이 1년 일한 임금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 1년을 일하고도 추가로 5월 6일까지(84일 동안)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구조가 성별 임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채용부터 업무배치, 승진까지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양YWCA는 5월 6일 동일임금의 날을 선포하고, 성별임금격차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온라인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세계여성의날 기념 '검은목요일' 온라인 캠페인



1908년 3월8일 미국 뉴욕에서 여성 섬유 노동자 1만 5천여 명은 10시간 노동제와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참정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남녀차별철폐, 여성빈곤타파, 여성지위향상 등을 요구하며 여성운동이 이어져 왔다. 유엔은 1975년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고양YWCA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Thursday in Black 캠페인'으로 여성폭력 추방과 제도적 해결을 요구하고 생존자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2020 고양시
환경분야 지원사업
키다리학교
For Our Future - 탈출! 기후위기!




“우리가 흔히 쓰던 에너지들이 기후난민들을 만들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우리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과도한 전기 사용을 지양하고 옥상 색을 바꾸는 것 등 실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알았다” - 덕이고 정유나

▶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없는
디지털사회를
위하여



“급격히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와서 그런지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기계로 대체되는게 불편했고, 그래서 무인시스템을 이용하기가 꺼려졌고 피해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서비스는 더 가속화될거고 더 이상 피해갈 수도 없다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이 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육을 통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무인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세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가자 인터뷰 중


2020년 고양YWCA 키다리학교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알아보고 지구를 생각하는 청소년시민활동가를 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2명의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이번 키다리학교는 지난 5월 9일 개강하여 기후위기 강의를 듣고, 조별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배워가고, 지구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키우고 있다. 일방적인 주입식 위주의 환경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키다리학교가 참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을 기대한다. 

“기후와 관련된 강의는 주변에서도 많이 접하지만 정작 이런 강의를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게 태반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지구와 관련된 오염이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강의를 계기로, 그리고 코로나를 계기로 기후서명과 같은 작은 계획이라도 실천해보는 자신이 되면 좋겠다.” - 대화고 홍현진

“석탄, 석유 등 고갈되는 자원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열심히 노력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가좌고 장세현

고양YWCA는 고양시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코로나상황과 4차산업혁명의 결과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전환, 비대면서비스의 폭발적 증가가 노년세대(특히 여성노인세대)들에게 디지털소외문제를 불러오고 있음을 주목하여 지난 5/7일부터 시민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없는 디지털 사회를 위하여’를 진행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여성의 삶 변화,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의 재생산과 젠더의 문제, 4차산업혁명의 그늘-디지털소외,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경험을 나누는 집담회,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VR시스템으로 키오스크경험해보기 등을 진행하였다. 향후 다양한 비대면서비스(무인주문, 무인결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고양시민 디지털정보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젠더관점에서 디지털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제안활동을 할 계획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YWCA 성명서
남북공동선언문, 실천만 남았다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은 분단 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인 만나 화해와 협력의 선언을 만들어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라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 선언은 남북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차원에서도 냉전의 대결에서 공존의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지난 20년간 남북관계의 기본 문서이자 원형이 되어왔다. 6·15 선언은 2007년 10·4 선언으로 이어졌고, 남북 간 위기의 10년을 지나, 2018년에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새로운 시대의 기쁨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한반도는 다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부당한 관계 전략, 북미 간 이행되지 않는 약속, 강력한 경제 제재 앞에 대화를 담은 북한의 완강한 태도, 그리고 세계 정세에 의존적인 한국 정부의 자세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남측 일부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를 진행하는 등 남북 대화는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6·15 선언의 정신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그리고 남북 상호 합의의 실천적 선언이라는 데에 있다. 한반도 평화의 기본 정신인 6·15 선언을 기억하며, 우호적이지 않은 주변 정세 속에서도 갈등 구조를 평화의 물줄기로 이루어내겠다는 열망과 실천력,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코로나19는 군사력이라는 국가안보에서 생명과 존엄이라는 인간안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 간의 신뢰와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북한은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완공식을 마루고, 평양종합병원 건설 착공 계획을 앞당기고 있으며,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보건부문에 7.4% 증액 편성된 예산안을 통과했다. K-방역으로 인정받는 남한은 국방비를 감축하여 약 2조원을 복지 예산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때에 남북은 보건 분야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한반도 공동체의 번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남북 선언문은 충분하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구체적 이행을 위해 남북의 시민사회들이 만나고, 각계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마을과 공동체들이 교류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결단을 통해 교착된 현 상황을 평화의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북한 정부는 남북대화의 통로를 재개하고 공동선언에 기반한 남한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국YWCA는 평화 분위기 조성을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 정세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연대를 요청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 2020년 6월 15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YWCA 기도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무기 대신 평화를 위한 기도	이산가족·디아스포라를 위한 기도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기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기도	세계 분쟁 지역의 고통받는 이를 위한 기도
생명 세상을 향해 전쟁의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포하게 하소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 차별과 편견에 놓인 디아스포라, 이 사회 모든 약자들에게 주님의 정의로운 보살핌을 허락하여 주소서.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을 생명의 바람으로 회복하사 평화를 위한 새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소서.	서로를 악으로 여기고 무기를 겨누는 이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의 분쟁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소서.

고양YWCA 가사도우미 [제 8회 한두레자치회 정기총회]



지난 5월 12일 한두레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지난 1년의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1년동안 수고한 임원과 조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고 올해는 특별히 20년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신 2명의 도우미들이 축하와 함께 20년 근속상을 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양YWCA재정사업 [맛있는 김치와 만능간장 만들기]

지난 5월 20일과 6월 4일 이사, 위원, 실무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고양YWCA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알타리 김치와 오이소박이, 만능간장을 만들었다. 국산재료를 사용하여 재료를 손질하고 직접 담고 판매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회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음에 서로 감사했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고양YWCA의 재정확충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 문촌9 종합사회복지관 [2020년 어버이날 행사 '사랑해孝 감사해孝']

지난 5월 8일, 고양시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상점 및 기업, 단체들로부터 여러종류의 과일과 곡물가루 등의 후원품,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 취약계층 노인 310가정에 직접 찾아가 어버이날 선물로 전달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어버이날 선물과 카네이션을 받은 어르신들은 밝은 미소와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자제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힘들 때 어버이날을 잊지 않고 도움을 준 지역의 상점 및 기업, 단체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번 어버이날 행사를 도와준 무궁화소상공인 자원봉사자협회, 하림가, 길벗상인회, 뚜레방,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일산광림교회, 농협대학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행복한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문촌9사회복지관 어린이집 [2020년 3월~5월 코로나19 전염병을 이겨내요~]

문촌9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등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놀이자료를 매주 2회, 재미있는 영상 음악수업(코엔코) 공지하여 부모님과 영유아가 가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보건복지부와 핑크퐁이 함께 만든 '아기 상아와 함께 손 씻기 노래 불러요' 영상을 공지하여 가정에서 영유아들이 쉽고 재미있게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을 배워 코로나 19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에서 영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공지를 통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며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 [찾아가는 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고양YWCA 가족사랑 상담소는 지난 5월 29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하나인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인형극 공연을 용두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서로 존중해요와 나쁜 비밀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라는 제목의 관계존중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공연이 진행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예정보다 늦게 공연이 시작되었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의 공연도 기대된다.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감정노동자 마음건강프로젝트 컬러테라피]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서는 5월 27일 고양시 감정노동자(학교급식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컬러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누구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의 기분이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행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대상으로 컬러를 통해 자신의 본질과 현재의 심상, 장애물, 추구하는 것들을 알아내고 정서적, 기능적으로 퍼스널 컬러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을 하였으며, 컬러를 통해 주변 관계를 들여다보는 과정과 컬러 진단 천을 활용하여 나에게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찾으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소중함을 알게 된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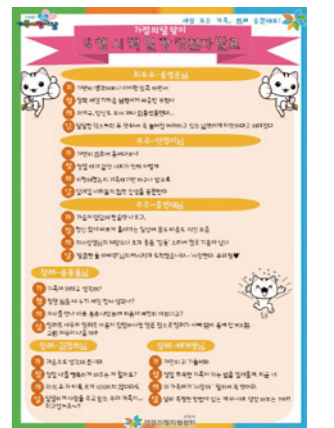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의달 프로그램-4행시 백일장]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5월 6일(수)부터 22일(금)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4행시 백일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4행시 백일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애가 각별해진 시기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고자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가정의 달'이라는 4글자를 가지고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의 달과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가정의 달을 정의하는 등 가족에 관한 4행시를 지어 접수하면 되는데, 총 65가정 201명이 참여했다. 접수한 모든 가족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었으며, 최우수 1명에게는 5만원, 우수 2명에게는 3만원, 장려 3명에게는 2만원의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되었다.

수상작은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oyangfc.familynet.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가족이야기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입사	한송이 사무원(2020.4.1.)	문촌9복지관 어린이집	육아휴직	정재은 교사(2020.6-8)
	퇴사	강안나 사무원(2020.3.31.)	건강가정지원센터	퇴사	지예나 (2020.3.31.)
		전우선 방과후교사(2020.4.30.)			김다혜 (2020.5.31.)



2020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후원회비입니다.

CMS 회원

강금화 강남정 강동건 강수영 강순자 강안나 강은아 강정희 강종두 강준민 강지선 강진숙 강철희 강현숙 강희정 견윤창 계수정 고경춘 고선미 고성연 고옥이 고옥현 고정숙 고태준 고현준 곽경자 박미란 박승현 박창훈 구분정 구은정 구인순 권경숙 권구철 권기웅 권수미 권여정 권영균 권용운 권용일 권현명 김갑훈 김 경 김경숙 김경안 김경옥 김경자 김경희 김경희 김계환 김광명 김귀화 김규자 김기숙 김나연 김대원 김명승 김명화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자 김미자 김미희 김민숙 김민희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천 김병학 김보현 김복숙 김복순 김분순 김석우 김선미 김선자 김설연 김성남 김성숙 김성엽 김성애 김성옥 김성옥 김성옥 김성현 김세연 김세영 김소연 김수경 김수정 김순례 김시화 김신실 김신애 김애경 김애경 김연수 김영도 김영란 김영수 김영수 김영희 김예원 김옥남 김옥선 김옥숙 김옥자 김옥희 김용근 김용숙 김우란 김원순 김유영 김은경 김은순 김은영 김은정 김은희 김은희 김이환 김인순 김인애 김인애 김인애 김일순 김재숙 김재원 김정순 김정윤 김정호 김재연 김종애 김종일 김종일 김주택 김주현 김중기 김중철 김지선 김지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원 김진호 김찬실 김재환 김춘애 김충기 김태미 김태은 김태현 김태형 김학인 김해련 김행미 김향순 김 혁 김현리 김현미 김현미 김현주 김현지 김형재 김형진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순 김혜정 김호석 김홍희 김효순 김효원 김훈혜 김휴희 김홍주 김희정 나가균 나야란 나애란 나윤옥 나종하 남궁성 남궁혜경 남상우 남윤숙 남이안 노미화 노 진 명연옥 모지영 문복희 문정은 문정인 문정자 문희경 문희숙 민경숙 민은식 민정미 박기원 박경선 박경화 박광애 박규영 박규련 박금옥 박기복 박남순 박범용 박병준 박상근 박상호 박상희 박서정 박선영 박성희 박수지 박순옥 박순철 박순혜 박순화 박순미 박순희 박양숙 박영신 박영희 박용준 박윤정 박유희 박인숙 박점래 박정돈 박정수 박정숙 박종관 박종문 박종미 박종민 박종숙 박종임 박주경 박주희 박지영 박지현 박진남 박진남 박진우 박진찬 박해동 박해숙 박현경 박현희 박혜선 박희규 박희경 반정민 반주우 방기식 방지연 방현숙 배민희 배서현 배정연 백수정 백형자 백희정 변창호 비단과 향신료 서동철 서순이 서연주 서영민 서영애 서영호 석병준 석영근 석은주 석진호 선창민 성경자 성곡숙 성조현 성화스님 소경희 소경연 손미나 손행덕 손혜원 손희경 송계화 송명숙 송미숙 송인옥 송인자 송재물 송주영 신규갑 신남철 신남희 신동란 신동욱 신두호 신문식 신선우 신선혜 신승철 신영란 신우섭 신우희 신은심 신은영 신재희 신정현 신종훈 심미숙 심석보 심수연 심하진 심형창 심홍순 안명숙 안미숙 안복희 안석민 안성민 안은선 안인숙 안재홍 안지연 안진희 안준미 양상국 양승래 양애숙 양원태 양윤선 양인숙 엄태웅 연영진 오기백 오다혜 오수경 오수자 오수현 오우영 오종택 오진영 오창훈 오현화 오현희 오형근 왕애리 우유선 원용열 유경옥 유미영 유보라 유새아라 유애희 유영상 유윤석 유진숙 유철훈 유현선 유호수 유호경 유길용 유덕필 윤문식 윤병선 윤보현 윤선주 윤소연 윤애숙 윤영균 윤영옥 윤인숙 윤정국 윤정숙 윤정애 유주영 윤준구 윤희도 이기연 이강석 이강옥 이근희 이경애 이경혜 이광수 이금수 이금순 이나연 이대성 이동호 이두은 이명순 이명윤 이명재 이명화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백채 이복래 이봉운 이상민 이상희 이선순 이선아 이수연 이수자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숙자 이숙미 이승원 이승환 이신애 이여진 이영남 이영심 이영애 이영철 이영표 이영희 이예은 이우열 이우진 이원희 이윤경 이윤숙 이은경 이은미 이은미 이은선 이은영 이은자 이은지 이은희 이의환 이인숙 이재열 이재은 이정민 이종대 이주기 이주연 이주영 이지선 이지숙 이지은 이진경 이진희 이진희 이찬희 이창열 이춘자 이태형 이혜숙 이혜원 이혜원 이현숙 이현주 이현지 이혜경 이혜영 이홍근 이화용 이효정 이희재 임상원 임수경 임수현 임수희 임숙영 임은선 임은이 임재경 임필남 임홍선 장길수 장 미 장상화 장선희 장순철 장순일 장승철 장여백 장여은 장영진 장인경 장인남 장정옥 장혜교 장희진 전경숙 전민자 전선운 전성원 전성해 전순택 전승희 전영철 전은국 전지연 전철자 전철호 전현경 전현민 전해림 전해숙 정경래 정경옥 정경화 정구상 정기현 정기훈 정만진 정미영 정미영 정미자 정선미 정선우 정선희 정선희 정성래 정성순 정수빈 정수아 정신애 정여진 정영관 정영석 정영한 정우환 정원대 정원재 정윤식 정은선 정의광 정재은 정판오 정현영 정현우 정현주 정형심 정혜정 조경오 조미경 조성환 조소리 조안순 조애진 조영근 조영숙 조용준 조윤성 조은경 조은서 조은영 조 정 조지혜 조현경 조현미 조현주 조희진 주선희 주수연 (주)에스트른 지순정 지 에 이 에 스 디 (주) 진상기 진의연 진재수 진태을 천승원 천정인 최경숙 최난경 최문희 최미점 최상영 최선영 최성연 최성진 최숙정 최영미 최유명 최유경 최은정 최은주 최자현 최정순 최정열 최종순 최준식 최지우 최지현 최지현 최해욱 최해월 최향숙 최홍숙 하미화 하연화 하영리 한경희 한금식 한명규 한명선 한명숙 한미경 한보희 한상민 한상아 한선희 한송이 한수아 한숙원 한정수 한정원 한희철 함윤수 함유희 허공균 호광여 홍기표 홍성진 홍우정 홍윤옥 홍유주 홍인선 홍정민 홍정민 홍정미 홍찬영 홍효기 홍효식 황경숙 황성용 황소영 황아영 황영은 황은영 황정원 황지애 황태성 황혜숙 황혜영 황혜영 황혜정 황화선

평생 회원

김태형 **특별 후원** 고양YWCA이사회 김춘애 승리교회 예수승리교회 이경애 한국YWCA연합회 한두레자치회 한보희

코로나19 특별후원

강안나 강현숙 고옥이 권용일 김경애 김금숙 김나연 김미경 김성현 김세영 김신실 김애경 김용주 김은서 김은찬 김재홍 김혜경 남궁혜경 남궁혜정 문정은 박규영 박선영 박진남 연임숙 유원국 윤선영 윤정애 이경애 이운주 이은주 이혜경 이혜영 전경숙 전지연 정선미 정수빈 정은선 진의연 최영미 최정애 황혜숙 황혜영

물품후원

송보희(유아용발대컵) 임상원(손소독제) (주)디케이대경(슬립온및 여성선들) (주)킨텍스(마스크 및 마스크필터)

후원참여방법

CMS회원	월 만원이상	평생회원	100만원
일반회원	연3만원	특별회원	10만원이상
어린이회원	연5천원	Y틴회원	연5천원
물품후원	후원해 주시면 작은물품도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293-01-0002-640			
(예금주: 고양YWCA)			

회비 사용처

<p>당신이 후원한 회비는 이렇게 사용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안전과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에 쓰입니다. 여성노동자 노동상담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쓰입니다. 노년세대들을 위해 디지털정보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활동과 정책제안에 쓰입니다. 청소년리더십개발 '주말대안학교 키다리학교 운영'에 쓰입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사업에 쓰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에너지전환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쓰입니다.
<p>회원가입 문의 : 031-919-4040</p>